



登山人들의 自覺이 간절하다

鄭 成 均

6월초 노고단에서 천왕봉까지 45km 중주산행길은 구름이 많았어도 비교적 선선한 날씨로 산행에는 쾌적했다. 선배님들의 권유에 못이겨 따라 붙게 된 것이 몇 년을 두고 이 코스를 오가며 익혔다. 그러나 막상 나서려면 지리산의 웅자에 매혹되면서도 그 준엄한 산세에 압도되어 그 미관은 사라지고 가슴 설레이기 마련이다.

40대에서 70대로 구성된 우리會友 중에는 평생을 애산에 힘써 단련에 걸친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어 우리는 안심이다. 누구나 산행에서 얻어지는 지혜로움이 자랑이요 즐거움이다. 반면 회원이라도 산행의 수칙을 범할 경우 그 질책은 대단하다. 노고단을 뒤로 돼지평정으로부터 연하천 산장에 이를 무렵 많은 비가 쏟아졌다. 산길 도처에 관리인들의 손이 미치지 못한 먼곳까지 등산인들의 쓰레기 수거를 위한 푸대처가 군데 군데 눈에 띈다. 비교적 말씀이 치위져 있어 그들의 노고에 머리가 수거러진다. 연하천산장은 노고단산장과 다를바 없이 입산금지의 타인지 산행인구는 매우 적다. 잠시 비가 끝났더라 텐트주위에 삼삼오오 남녀들이 취사금지도 아랑곳없이 식사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등산로 차단회 포포라도 푸는듯 싶다. 이것이 애써 오른 고산의 특혜라고 보아야 할지. 학생을 자처하는 3인조가 초행길이라며 도중에 비를 맞는 한이 있어도 천왕봉까지 가겠다고 길을 케 묻는다. 일견하여 허술한 장비로 25km의 길을 가겠다고 제정신들이 아닌듯 싶다. 하오 4시다. 익숙한 등산인이라도 도전을 꺼리는 산길인데 분명 서늘우변 산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표고2천에 가까운 험준한 지리산이요 곧 어둠이 되는데 어떻게 가겠느냐고 걱정해 주었다. 강풍

에 몰려온 먹구름이 시야를 가리우며 산장을 덮어 씌운다. 또 옆에서 젊은 여성들이 역시 산행을 계속하겠다고 나선다.

이것이 젊은 이들의 사고방식인가 싶어 철없는 젊음들이 서글퍼짐을 금할 길 없었다. 산을 좋아한다면서 왜 산을 좀 알려고는 하지 않는 철부지들인지... 한편 취사를 마친 어느 무리들은 먹다남은 찌꺼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간다. 어떤 이는 버리라는 쓰레기통 밖에 콩초와 휴지를 그냥 버리기 예사다. 보다못해 뒷 청소를 했건만 당연한 일로 여기는 눈치들이다.

중년 남녀가 지나치며 나를 가리켜『관리인인가봐...』하며 중얼댄다. 노고단에서 한 관계자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첫째 등산에 흥미를 갖는 초심자들은 쓰레기를 꼭 가지고 간다는 것이고 여타 대부분의 등산객들은 그들의 그릇된 점을 지적했을 때 마지못해 못이기는척 시정하는 눈치들이라고 한다.

또하나 흠이라면 기상에 대한 기초상식이 없어 고산에서의 기상변화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고 장비의 소홀과 비상식량 그리고 약품 등을 등한시하여 주위를 소란케 하고 어려운 경우를 당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이다.

둘째 산세도 제대로 알지 못하며 마치 전문가로 둔갑해서 악천후를 무릅쓰고 가겠다고 고집하는 젊은이들을 볼 때에는 환멸을 느낀다는 것이다.

셋째 좀 알만한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만을 구가하며 무턱대고 아무곳에나 콩초와 파자봉지, 껌, 휴지, 쓰레기 등을 버리는 꼴은 그 사람의 품위인격과 인생삶의 경륜을 의심케 한다는 것이다.

나는 문득 청소하는 나를 가리켜 관리인인 것 같다고 하는 앞서의 그 남녀들이 생각났다.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는 맘대로 멋대로 어지럽혀도 된다는 생각들인지, 자기 집에서도 그렇게 하는지?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보다는 입산금지 결과 자연보호에 보탬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며 6월8일 새벽에 세석길을 재촉했다.

싸늘한 맑은 날씨다. 멀리 세석의 촛대봉이 아물 거린다. 가는길 도처에 쓰레기와 오물을 담은 푸대들이 군데 군데 모여져 있다.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를 모아줄 줄은 안다는 증거다. 이제 한가지만 더 알면 된다.

登山人들의 自覺이 간절해짐을 느낀다. 아침부터 세찬 바람이 분다. 안개비가 수반되어 惡寒이 날 지경이다. 일행은 세석을 거쳐 장터목까지 강행한다는 것이다. 나는 다소 지쳐서 세석산장에서 묵었으면 싶었으나 기후의 변동이 심상치 않아 하산길을 염려해서 장터목까지 가야 한다는 대장님의 불호령이다. 갈수록 많은 구름이 몰려와 앞을 가로 막는다. 산행을 많이 했다고 여겼어도 빗속의 산행은 처음 겪는 일이라 비바람에 쏘려 몸을 제대로 의지할 수 없다. 때로는 바위를, 때로는 나무를 의지해야 했다. 비는 전신을 적시고 입은 옷이 비에 젖어 보행이 어렵다. 일행중에는 나침반을 꺼내 方向을 잡는 이도 있다. 구름에 쌓인 주변은 어둡고 물에 젖은 산길은 미끄러워 이처럼 노기찬 산의 시련을 처음 겪었다. 연하천에서 장터목까지는 10시간 가까이 소요된 셈이다. 강풍과 폭우에 시달리면서 산장에 무사히 도착했으나 취사장은 비바람으로 사용불능이었고 산장안은 구석구석 추위에 떨며 앉아 있는 수십명의 등산객들이 하산을 걱정들한다. 추위에 지친 몸을 이끌며 갖고 간 간식용으로 끼니를 땀다. 비는 산장을 쏟아갈 듯 쏟아진다. 강풍과 폭우가 금방이라도 온 天地를 쓸어버릴 것 같다. 산장밖 텐트에 있던 젊은 남녀들이 산장안으로 밀려 든다. 무리해서라면 2백명 정도의 인원이 대피할 수 있는 산장인데 거의 거의 다 찼다.

밤 11시가 되었다. 내일도 폭우가 쏟아진다는 일기예보라며 하산은 중산리와 백무동을 중용하는 산장관리자의 권유다. 절대 거림과 한신계곡은 피하라

는 말이다. 이같은 권유에도 불구하고 한신계곡과 거림으로 내려가겠다는 젊은이들이 나섰다.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다.

아! 확실히 자살행위다. 나이가 지긋한 몇분이 물바위가 내려간다는데 죽으러 가는 것이냐고 책했다. 건방진 철없는 젊은이는 배낭을 덜쳐매며 잔뼈가 이곳에서 굶었으니 관여치 말라며 위협적 언사를 말리던 어른에게 던지고 간다. 얼마후 그 젊은이가 물에 빠진 쥐모양을 하고 되돌아왔다. 한신계곡 500m로 못 간곳에서 물기둥이 선 것같이 되돌아왔다며 그 물기둥이 무엇이냐고 꽤 묻는다.

평소에도 위험이 도사린 곳이 한신계곡이다. 수압에 바위가 굴러 떨어지는 형극을 표현할 것이라고 백무동 李씨 노인에게서 들던 말이다. 새벽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꾸 들어닥친다.

모두가 지쳐 탈진상태들이다. 폭풍우에 견디기 어려워 민박을 청했는데 방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며 이곳 산장에 오면 쉬고 먹을 것이 있다는 안내자의 말만 믿고 기를 쓰고 올라왔다며 이제 안도감에서인지 그 여인은 울음을 터뜨렸다. 영영 울었다. 우리 일행은 그이에게 담요를 씌워 주었다. 죽기일보 직전이라는 말을 서슴치 않고 내 뱉는다. 산이 좋다가에 따라 붙었다가 이지경이라며 후회하는 눈치들이다. 아마 이들은 평소 아름다운 산의 경관이 怒하면 얼마나 무서운가를 절감했을 것이다. 또한 장비의 긴요함과 먹을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새벽 5시 일행을 안내해온 사람이 길을 묻는다. 참으로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이 폭우와 폭풍속에 하산이라니~. 관리인은 다시금 백무동길되는 위험하다는 충고를 준다.

경험이 부족한 인솔자들이 전문인으로 둔갑해서 초심자들을 우롱하는 이같은 소행을 단속할 방도는 없을까 싶다. 추위와 허기에 지친 일행은 인솔자의 위협에 가까운 명령에 따라 폭우속의 길을 떠났다. 우리 일행은 그들의 안전을 빌어주는 수밖에 별도리가 없었다.

라디오에서 거림과 배암사골에서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들렸다. 남의 일 같지가 않다.

(筆者: 本會會員 · 오목골山友會 總務)